

# 금호타이어, 매각 잡음에 기업 가치 하락

### 신용등급 'BBB+'로 떨어져...유동성 위기 우려

### 채권단 "무산시 지원 중단·박삼구 회장 경영권 박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협상이 지연될 경우 유동성 위기와 기업가치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일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재등재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향 주요 논리는 ▲설비투자 지연으로 시장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해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실적 부진 심화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점 ▲투자 부담 감안 시 중단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이다.

금호타이어는 설비투자 지연으로 고인차·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늦어 경쟁사와 영업실적 격차가 벌어졌다. 조지아공장과 남경공장 가동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공장이 정상稼동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지아공장에 485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투자가 본격화 된 뒤 2015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영업력 약화로 실적 부진이 심화됐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워크아웃이 종료된 2014년 262.3%에서 올해 3월 말 332.3%, 차입금 의존도는 50.4%에서 53.4%로 악화됐다.

특히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이 지연되면서 신용등급이 더 하락할 위험도 남아있다. 지배구조 변동의 불확실성 해소가 실적변동성, 유동성 대응능력 등 재무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상표권 사용, 협약채권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채권단과 충돌하고 있어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권단은 금기가 아닌 더블스타 매각이 무산될 경우 "박 회장의 경영권을 반드시 박탈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 회의를 통해 "금호산업 이사회 회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문제를 오는 7월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만약 상표권 협의에 실패해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아시아나의

거래 관계 유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지원 중단은 물론 박 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맡긴 금호출당스 지분(40%)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 등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된다면 추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박 회장 등 현 경영진의 퇴진, 우선채권 박탈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그룹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채권단은 현재 추진중인 1조 3000억원 채권 만기의 3개월 연장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9월 23일까지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만기 연장이 무산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9.23 (-1.67)

금리 (국고채 3년) 1.69% (0.00)

↓ 코스닥 669.41 (-6.03)

↑ 환율 (USD) 1135.40원 (+2.70)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19일 마세라티 광주 전시장에서 열린 토크쇼에서 강연하고 있다. <마세라티 제공>

## 마세라티, 광주서 알베르토와 '여행 토크'

마세라티가 주최한 이탈리아 감성 여행 토크쇼 '지로 디 이탈리아' 광주행사가 19일 저녁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운천저수지 사거리 마세라티 광주 전시장에서 열렸다.

토크쇼 주제인 지로 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뜻의 이태리어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날 행사의 주제 도시는 시칠리아. 몬디는 시칠리아를 아름다운 자동차 도시라고도 전했다. 그 이유는 '밀레 밀리아' 자동차 레이스가 시칠리아 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밀레 밀리아는 1957년 이전에 생산된 클래식 자동차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다. 마세라티 모델 중 '마세라티 450S'는 1956년도 밀레 밀리아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날 전시장에서는 이탈리아의 저명 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몬디는 파바로티와 마세라티의 인연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는 "모데나 출신인 파바로티는 마세라티의 열렬 마니아였으며 심지어 직접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마세라티 특유의 예술적 엔진 사운드가 탄생하는 순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의 첫 마세라티는 세브링 3500GT"라고 말했다.

한편 알베르토 몬디와 함께 이탈리아 10개 도시를 생생하게 소개하는 한편 1914년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마세라티에 관한 역사와 다양한 에피소드도 들려주는 지로 디 이탈리아 행사는 22일 마세라티 부산 전시장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감성 여행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수출 늘었지만 흑자 줄었다

### 광주·전남 5월 수출 전년비 10.5%·수입 28.7% 늘어

### 흑자는 22.4% '뚝'

광주·전남지역 올해 5월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감소했다.

2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 증가한 3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28.7% 늘어난 28억5천 900만 달러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22.4% 감소한 9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수입 35.4%, 수출 9.8% 각각 증가해 무역수지는 49억4천4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5% 감소한 11억9800만 달러, 수입은 3.8% 증가한 5억2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6억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의 경우 가전제품

(7.9%)는 증가했으나, 자동차(-6.8%)·반도체(-5.5%)·기계류(-20.1%)·타이어(-21.2%)는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56.6%)·가전제품(25.7%)이 증가했지만 반도체(-3.4%)·기계류(-41.3%)·화학품(-4.1%)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남미(53.9%)·EU(0.9%)·중국(27.5%)은 증가했으나, 동남아(-12.4%)·미국(-23.6%)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6.5%)·중국(43.5%)은 증가했으나, 미국(-57.9%)·일본(-8.6%)·EU(-31.5%)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8% 증가한 26억1200만 달러, 수입은 35.6% 증가한 23억5700만 달러로 2억55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수출은 화학품(25.9%)·석유제품(54.8%)·철강제품(14.2%)·기계류(71.0%)가 증가했고, 선박(-67.3%)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



### 혼자 마실 땀 1인용 와인

20일 광주신세계 L&B와인 매장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이 소용량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이 매장에서 1인 가구를 위해 기존 750ml에서 325ml로 사이즈를 줄인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창업 中企 기술 개발비 최대 2억원 지원

### 28일~다음달 13일까지 신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비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

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해당 업체는 1년 이내에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면 된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업체 수와 지원액을 정하고 설정 1년 이내에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건설현장 안전 강화 포스터 공모

### 익산국토청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포스터 공모전이 실시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완중)은 건설제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 현장에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며 건설현장 종사자는 물론 학생, 일반인 등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내용과 건설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제출된 포스터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9명을 선정한다.

심사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호남권 건설안전 협의회 소속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하며, 입상자는 개별 통보(7월말)한 후 9월중에 포상할 계획이다.

응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포스터 제목과 간략한 작품 내용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3-850-9427.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